

글과 그림이 풀어낸 '이미지' 여행

'화가들의 글·화가들의 책' 전시회



화가들이 발표한 글과, '글과 그림'을 담은 책을 한자리에 모은 '화가들의 글·화가들의 책' 전시회가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환기미술관(2월22일~3월17일 391-7701)에서 열리고 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미술가들이 신문지상을 통해 발표했던 단문과 컷을 컴퓨터 작업으로 재구성한 작품 100여점과, 34인의 화가들이 출간한 화문집 30여권이 함께 전시, 예술가의 내면과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이 전시회를 기획한 환기미술관의 오광수 관장은 전시회와 함께 출간한 《화가들의 글·화가들의 책》의 머리말을 통해 50,60년대 '글과 그림'의 조화로운 흐름을 짚어내고 있다.

그에 따르면 50년대에는 글과 그림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문화면의 앞머리를 화가들의 글과 그림으로 장식하곤 했다. '글과 그림'에 실린 컷은 사실적이고 설명적인 내용보다는 비교적 압축된 구상 화풍이나 반추상적인 화풍이 많다. 대부분의 컷은 흑백톤이라 압축된 내용이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펜화가 가장 많고 묵화, 판화도 보인다. 특히 판화는 흑백톤의 대비효과로 선명한 긴장감을 더해준다.

'글과 그림'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계절과 관계된 것들이다. 계절 변화를 실감있게 전해주는 매개역할을 신문의 '글과 그림'란에서 소화해낸 셈이다.

'글과 그림'의 컷이 간략하듯 글 역시 짧은 형식의 단상들이다. 때론 시의 형식을

취하기도 한다. 50년대에 비교적 활발했던 '글과 그림'의 난이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줄어들다 자취를 감춘 것은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 있게 한다. 이즈음 화가들의 화문집이 점차 많이 선보인 것도 달라진 모습이다. 수필가로 활약이 컸던 천경자를 비롯해 《근원수필》의 김용준, 김환기 등은 대표적인 예.

글과 그림이 한데 어우러진 화문집을 낸 화가들로는 김기창, 이대원, 박래현, 박고석, 임직순, 장옥진, 정건모, 최종태, 김종영 등이 있으며 60년대 이후 등장한 세대의 작가들로는 이종상, 송수남, 이만익, 이숙자, 방해자, 최옥경, 황주리 등이 있다.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 풀어낸 '이미지'는 또 다른 상상력을 자극함을 이 이색스러운 전

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제한된 지면의 신문문화면에 실리던 데 불과했던 50, 60년대에 비해 최근에는 화문집을 펴내는 화가들이 많아졌다. 전시회에 선보인 화가들의 화문집들. ① 천경자 《아프리카 기행화문집》(1974) ② 장옥진 《강가의 아틀리에》(1975) ③ 김용준 《근원수필》(1948) ④ 김기창 《세계화필 기행화문집》(1983) ⑤ 황주리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1991) ⑥ 김병중 《먹으로 그린 새가 하늘로 가네》(1995). ▲

신문의 '글과 그림'란에 실렸던 내용은 주로 계절의 변화를 실감있게 표현한 것들이 많다. 유명작가들의 개성이 드러나는 단컷들을 보는 맛도 각별하다. ① 박수근 <겨울을 뛰어넘어> ② 장옥진 <새해인사> ③ 김환기 <하늘> ④ 김홍수 <삶의 구원> ⑤ 정규 <우리도 함께> ⑥ 강환섭 <판화의 전통>. ▶

바쁜 원고 까다로운 원고는 모두 삼연의 뜻으로 남겨두십시오

시간을 다투는 일이나
손이 많이 가는 까다로운 편집 일을 두고
혹시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 땐 바로 삼연편집실을 찾아 주십시오.

.....

자서전·회고록·개인 출판물 및 문예물 등을
집필해 드립니다.

또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정연하고
유려한 문장이 되도록 운문도 해드립니다.

사전류·한서류·문학 및 학술 서적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완벽한 교열·교정을 해드립니다.

교정과는 별도로 전문 레이아웃도 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잡지·사보·단행본 등
그 출판물의 성격에 가장 어울리는 레이아웃으로
알차고 깔끔하게 면구성을 해드립니다.



매킨토시 6대, 집필·교정용 컴퓨터 8대, 레이저 프린터 3대,
스캐너 2대, 인화지/필름 출력기 1대.

라바사이드호텔	↑ 한남대교
	● 삼연은행
우림빌딩	SKC몰라자
	전철3호선(신사역)
어린이 놀이터	현대산업
	● 월드컵센터
	사조신용금고
	↓ 영동 사거리

三硯編輯室 대표자 : 김문권
137-030 서울 서초구 잠원동 26-15(우림빌딩 5층)
전화 : 549-6883~5 팩스·모뎀 : 515-1453
천리안 ID : SAMYEUN

